



2020년 12월 20일(제1013호) 대림 제4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사랑을 떨어주세요.”

‘떨어’라는 말이 있지요. 팔다 조금 남은 물건을 다 털어서 싸게 판다는 뜻입니다. 마감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인데요.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대림제4주일, 대림초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빛이 없는 어두운 방에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눈을 떠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 하나에 불을 밝힙니다. 그러자 그 주위가 작게나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초 하나로는 어두운 방을 온전히 밝힐 수 없기에 또 하나의 초로 불을 밝힙니다. 한 개의 초보다, 두 개의 초에 불을 밝히니 어두웠던 방이 더 밝아 집니다. 곧이어 세 번째 초에 불을 밝힙니다. 두 개의 초에 불을 밝힐 때보다 세 개의 초가 어두운 방을 더 환히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네 개의 초에 불을 모두 밝힙니다. 그러자 네 개의 초는 어두웠던 방을 더 환히 밝힙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대림 시기는 내 마음속 어두웠던 모습을, 내 마음속 보이지 않던 주님을, 내 마음속 감추어놓았던 그리스도를 초의 불빛으로 환히 밝히면서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기에, 오늘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에,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겐 오늘도 내일도 그다음 날도 확실한 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마지막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대림초의 불이 네 개가 밝혀졌지만 서둘러 주님을 모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림초에 불이 다 밝혀진 오늘, 그래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시간이 우리에게엔 있습니다. 상인들은 떨어 값이라도 좋으니 마감 시간까지 물건을 팔고자 합니다. 성탄이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한 나의 작은 사랑 실천이라도 행하면서 사랑을 떨어해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사랑의 작은 실천으로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자리를 만들 수 있으니 어서, 지금, 당장, 사랑을 베풀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형원(디미아노) 신부
백골(3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2사무 7,1-5.8ㄷ-12.14ㄱ.16

회답송 ◎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2 독 시 로마 16,25-2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복 음 루카 1,26-38

영성제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상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화

세 번째 시화

그런데 막 돛을 올려 출발하려는데 범 요한이 상해로부터 천주교 신자들의 작은 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매스트르 신부님은 즉시 계획을 바꾸어, 저와 함께 위에서 언급한 黃世興이라는 외교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세실 함장은 마닐라로 출발하였습니다.

브뤼니에르 신부님과 토마스는 9월 11일에 범 요한과 천주교 신자들의 작은 배를 동반하고 영국 군함을 타고 갔는데, 거기서 의복을 바꿔 입고 상해에 계시는 주교님한테로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모두 잃고 외교인 황세흥 씨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달리 조선으로 향해 갈 길을 모색하며 출발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부님도 아마 아시다시피, 영국군은 여기서 강 오른편 연안에 있는 몇몇 도시와 상해를 함락시키고 남경(南京)으로 진격하였습니다.¹⁾ 도중에 성곽과 천연적 지형으로 방어된 도시도 점령하였는데, 그 도시는 진강부(鎮江府)라고 불립니다. 이 도시의 왼편에 있는 제국 운하 근처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금으로 된 섬이라는 금산(金山)이 있습니다.

영국군이 남경에 도착하여 그 도시 북쪽에 있는 산(즉 鐘山)에 군대들을 상륙시키고 그 도시를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이 광경을 보고 벌벌 떨면서 영국군에게 강화를 청하러 사자(使者)를 보냈습니다. 영국군은 이런 사실을 알고 저들의 제의를 받아들여 강화 조약(남경조약)을 맺고 8월 29일에 조인하였습니다. 영국인들과 이 강화 조약을 맺은 중국 측 고관들의 성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황제의 외숙부 기엔(耆英) 씨
- 대청 제국의 전권 대신 이리포(伊里布) 씨
- 달단군(驍騎軍)의 장군 티(乍浦) 씨
- 강남 총독 뉴킹(牛鑑) 씨.

그 후 황제가 강화 조약과 그 조건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칙서를 내렸습니다. 강화 조약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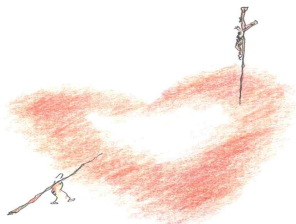
1. 중국은 영국에게 배상금 2천 1백만 원(元)을 지불할 것.
2. 중국은 6개 항구에서 영국과의 통상을 승인할 것.
3. 영국은 북경 황제에게 대사를 파견할 것. <다음 주에 계속>

1) 아편전쟁 당시 영국군은 1842년 6월 16일에 양자강 입구의 오송 포대를 함락시키고, 수일 후 남경으로 올라갔다.
 2) 남경조약의 내용은 6개 항이었다. 그리고 김대건 신학생이 '6개 항구를 개항할 것'이라고 한 것은 '5개 항구'의 잘못이다.
【상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화】 발췌, 상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록	상
---	---	---	---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어머니



당신의 영혼이
 갈에 꺾질리는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 뜻대로...

그렇게
 아들의 길을
 함께 걸으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우리의 어머니들
 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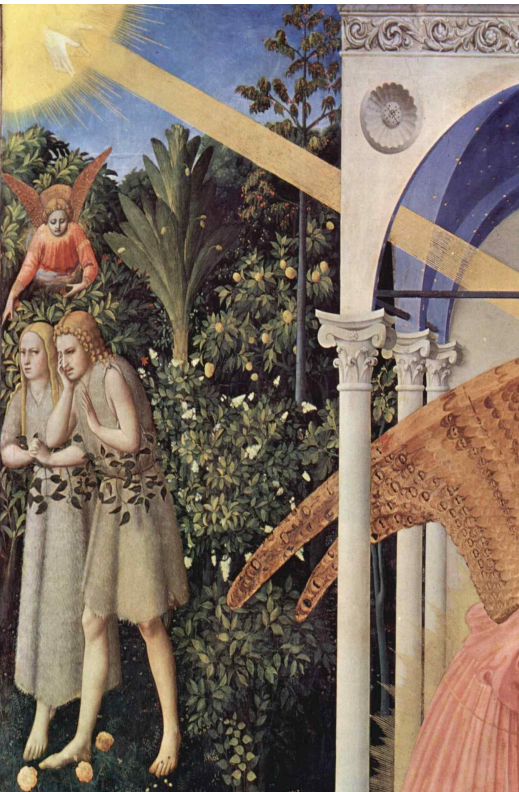
상화이야기

수태고지



왼쪽에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가, 중앙에는 수태고지 장면이 그려진 그림으로, 왼쪽 상단의 금빛으로 빛나는 손에서 나오는 빛이 성모님께 향하고 있으며, 그 빛에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성모님께로 내려오고 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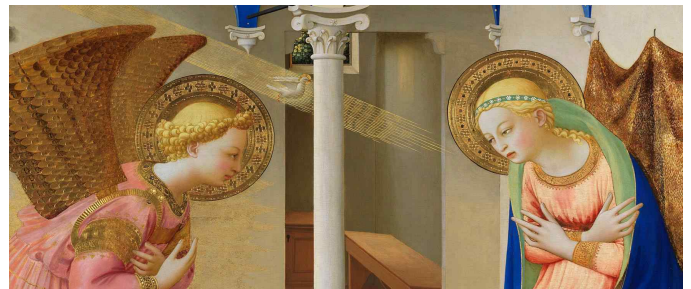
프란 안젤리코, 1435년 경 작
 패널 위 템페라화, 154×194cm
 프리도 미술관, 스페인 미드리드



건물 중앙 기둥 위에는 하느님이 이 장면을 내려다보시는 듯 그려져 있으며, 성모님보다 낮게 고개를 숙인 천사의 아름다운 금빛 날개와 분홍빛 의복, 성모님의 푸른 빛(금보다도 비췄던 물질) 의복과 또한 푸른빛으로 칠해진 건물 천장이 인상적이다.

사실 이 그림은 원근법은 무시된 그림이다. 성모님과 천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건물 천장에 닿을 것이다. 아마도 과학적인 접근보다, 영성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묵상하길 바라는 화가의 마음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대림 제4주일: 상무대 정태희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장회의

때·곳: 12월 22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대림 제4주일 특강 인니

강사: 나광남 신부(공군본부)

주제: 기쁘게 준비하는 성탄

게시: 12월 18일(금) 17:00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종” -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습니까?” (마태 24,45)